

삼사석 위에 자갈·동전 어지럽게 널려 '눈살'

문화재 관리 부실...담장 안 소나무는 고사, 재선충병 감염 추정

데스크승인 2014.09.25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제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삼사석이 일반 돌맹이들과 뒤섞여 있는 데다 동전들까지 어지럽게 놓여있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삼사석을 보호하는 담장 안에 있는 소나무는 잎이 누렇게 말라버린 가운데 재선충병으로 인해 고사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현장 확인 결과 삼사석이 보관된 '삼사석각' 석실 안에는 삼사석인 수박 크기의 현무암 2개 외에도 크고 작은 돌맹이 수십 개가 뒤섞여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들 돌맹이 위에는 50원짜리와 10원짜리 동전 20여 개도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향토사학자들에 따르면 이들 동전은 일부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소원 성취를 빌며 던진 것이다.

삼사석을 둘러싼 담장 안에는 소나무와 팽나무, 배롱나무(백일홍)가 한 그루씩 자라고 있는데 그 중 소나무는 잎이 말라버리는 등 재선충병에 의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됐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삼사석과 섞인 돌맹이와 동전을 제거하겠다"며 "소나무는 말라죽었을 경우 문화재 보호법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